올해 일자리 정책 '으뜸'

순창군, 최우수 기관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 원 확보

순창군이 도내 일자리 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일자리 으뜸 시군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군은 최근 전라북도가 실시한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는 전북도가 각 시군의 일자리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고용지표 및 취업지원 실적, 일자리창출 노력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 등 시·군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순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훈련교육',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올해 받게 될 인센티브 1억 원으로, 직업교육훈련과 기업체문화복지 지원사업, 관내 고교생 취·창업 교육비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아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도배장판 기술자 양성교육 등 직업교육 훈련을 추진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어민 소득 증대 위한 예산확보 총력

남원시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한발 앞선 예산확보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4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277억원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 받은 결과 전년도 신청 예산 1,193억원 보다 84억원이 증가한 1,277억원이 신청되었다.

분야별 신청액은 농업인이 직접 시행하는 자율사업이 34개 분야 645억원,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28개 분야 632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촌개발과 후계농업인 등 농업전문인력양성, 신기술보급과 경영 능력 향상, 쌀 산업 생산기반확충과 농지규모화 촉진 등에 883억원, 과수?원예의 고품질 생산과 축산경쟁력강화 등 원예 축산분야에 333억원,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개선, 고품질생산에 61억원 등이다.

시는 심의에 앞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 2020년도에 사업 분야별로 시행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총무국장 등 부서장 주요사업장 점검

남원시 황의훈 총무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이 해빙기를 맞아 총무국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이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는 사업현장 방문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원활한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첫날(4일)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전시관, 홍보전산과의 다목적 멀티전광판 설치 예정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를 방문해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며, 5일에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인 예가람길 시설물 운영상황과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 등 15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황의훈 국장은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은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해 남원관광의 옥동자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총무국장 등은 8일까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현장 등 총 29개소의 현장을 방문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앞장'

임실군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3월 청원조회에서 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공공부문 1회용품 실천지침'에 대한 홍보 동영상 시청 및 교육을 진행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실천사항으로는 사무실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민원인 방문 시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비치하길 권장한다.

또한 회의나 행사시에도 다회용기 사용 및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를 해야한다.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는 페트병 식수 제공을 금지하고 참석자들에게 미리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길 권장하며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이윤도 팀장은 "지구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의 편리성에서 벗어나, 작은 실천과 노력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쓰레기 문제를 풀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여 점차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군립도서관이 알찬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 프로그램 '눈길'

임실군립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군립도서관이 올해 상반기를 맞아 풍성하고 알찬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군립도서관은 이달 5일부터 5월까지 12주에 걸쳐 유아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6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및 성인대상으로는 매주 화요일 6시 30분에는 '책향기 커피지도사반'을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알로하, 우쿨렐레:초중급'을 운영한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격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시(視詩)한 낭송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수요에 맞는 풍성하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관내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자초청강연을 실시해 글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평생교육의 증진과 소통하는 문화공동체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나가겠다"며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작은목욕탕이 이용객 4만8,000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작은목욕탕 내부.

순창군, 작은목욕탕 지역어르신 사랑방 역할 '톡톡'

순창군 작은목욕탕이 지난해 이용객 4만8,000명을 돌파하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2009년 동계면 작은목욕탕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구림면까지 면 10곳에 작은목욕탕 시설구축을 완료했다.

이용료는 만 65세이상 노인에게는 1,000원, 그 외 관내 거주자에게는 2,000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탕 이용료의 약 1/3 수준이다.

특히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해 이용의 문턱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복지시책 만족도면에서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 4만8,000명 중 노인인구가 3만7,500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78%에 이르는 등 작은목욕탕이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생활의 터전으로 자리잡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확보해 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3,000호 중 전북지역 182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남원시의 공급호수는 9호로 이번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최대300만원과 월10만원 이내의 월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정화조-웅덩이 방역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모기유충구제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충 서식 가능성이 높은 정화조, 시장, 공중화장실, 웅덩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할 계획이며, 모기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성충구제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모기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이에따라 남원시보건소는 지난해부터 모기유충, 성충 서식지 신고제를 운영해 모기 서식지로 의심되는 집주변 웅덩이, 배수로, 하수구, 정화조, 물이 고인 소하천을 시민들로부터 신고(620-7921)받아 자료를 구축하고 유충구제에 활용하고 있다.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해빙기에 물이 있는 곳에서는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다며,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고인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정화조에 모기서식 여부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